

제20대 대중회 임원 선임 및 자문위원 위촉

주인정신, 도덕성, 역사의식이 살아있는 전통과 품격있는 대중회로 만들자



권혁홍 회장

제20대 권혁홍 회장 체제가 지난 5월 27일 출범했다. 권혁홍 회장은 출범 즉시 제20대 임원 선임을 위한 인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에 권태정 검교공파회장을 비롯하여 위원으로 권오돈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태호 지역총친회장협의회 회장, 권오상 전 사무총장, 성균관 감사인 권선출 이사를 선임했다. 간사는 권행완 편집국장이 맡았다.

권혁홍 회장은 대중회 부회장으로서 매년 대중회 달력을 제작해 기증했다. 그런데 막상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이 되고 보니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3년 후면 권기(權紀) 1100년이다. 1100주년 TF를 만들어 권기 1100년을 기념할만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100만 종친을 통합시키고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다음은 권혁홍 회장이 평소 생각하는 대중회의 모습이다. 주요 요지는 이렇다. 대중회는 시조 태사공의 모든 후손들의 대표 기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다. 주인은 남이 시켜서 강제로 참여하지 않는다. 주인은 자발적이다. 정관에는 주인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주인으로서 의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봉사정신으로 안동권문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안다. 참으로 고마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러나 대중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가치인 주인정신과 도덕성 그리고 역사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약하면 주도력(주인정신, 도덕성, 역사의식)을 갖춘 종친들이 되고 대중회가 되었으면 한다.

먼저 주인정신이다. 모두가 주인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이 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진정한 주인정신이 없으면 권리만 주장하고 회비 납부, 행사 참석 등 의무는 다하지 않는 방관자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내가 주인인 만큼 상대방도 똑같은 주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과 명예를 위해 양보할 줄 아는 성숙한 주인정신이 있을 때 조직은 발전한다.

둘째는 도덕성이다. 종친회는 강제적인 법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기보다는 도덕성 자율성이 조직의 생명을 좌우한다. 도덕적 기준이 확립되어야만 조직의 투명성이 유지되고 구성원 간의 탄탄한 신뢰가 형성된다.

셋째는 역사의식이다. 대중회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다. 시조 태사공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1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미래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바로 역사의식이다.

이 세 가지 가치인 주도력(주인정신, 도덕성, 역사의식)으로 정신무장을 단단하게 하도록 하자. 이 가치가 내재화될 때 대중회는 전통과 품격이 살아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대중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이정표라고 생각한다.

인선위원회는 권혁홍 회장이 제시한 대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고려하여, 제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인선의 방향과 기준을 심사숙고하여 정했다. 먼저 투명하게 정관 규정대로 임원을 임명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임원의 임기는 관례에 따라 전임 회장이 퇴임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하고 신임 회장이 전임 임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내용은 제52차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정관 제6조 회비 납부에 대한 임원의 의무 조항을 기준으로 부

회장과 이사 등 임원의 선임 자격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 인선위원회는 비록 숫자가 적더라도 원칙을 준수하여 선임할 것을 결의했다. 임원이 선임되면 파종회장협의회와 지역총친회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제20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지역 안배와 직능 대표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임원을 선임하여 규모 있게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동의했다. 더하여 정관에 중무위원회는 파종회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파종회장은 모두 임원이 된다.

그러나 지역총친회장을 임원으로 임명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회장이 지역총친회장을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 한 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각 지역에서 지역총친회장의 역할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회장이나 이사로 선임하여 임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문은 정관 제11조(자문기관)에 따라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으로 분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분을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 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8월 중순 경에 대중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용준 부회장 국제로타리 3750지구 총재 취임



권용준 대중회 부회장이 7월 1일 오전 10시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SINTEX) 컨벤션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로타리 3750지구 총재에 취임했다.

권용준 부회장은 안양종친회장을 역임하며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종친회 발전에 크

게 기여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권순보 안양종친회장, 권정걸 전 안양종친회장, 권인상 장학회 이사장, 권희완 수석부회장, 권기철 신입회원 활성화 위원장, 권행완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권혁홍 회장은 축사를 통해 취임을 축하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제20대 대중회 임원 선임 및 자문위원 위촉

위원장(4명)

전례위원장 권혁창(36세, 복야)
종보편집위원장 권태정(33세, 검교)

종사연구위원장 권중달(32세, 추밀)
문헌편찬위원장 권오신(35세, 좌윤)

수석부회장(1명)

권태정(검교공파회장)

부회장(38명)

권성용(전 부산총친회장)
권수용(세계평화연합 이집트회장)
권순보(안양종친회장)
권순배(전 이사장)/권문희
권영길(전 이사장)/권문희
권영복(서울지역총친회장)
권영식(영등포)
권영현(부산지역총친회장)

권영훈(법무법인 현빈 대표)
권영훈(신영산업대표)
권오상(전 사무총장)
권오서(전 부정공파총회장)
권오수(한국가스기술인협회장)
권오춘(양평)
권우영(종파회장)
권정걸(전 안양지역총친회장)

권정달(웅도건설 대표)
권정일(태광상사 대표)
권중수(영주총친회장)
권중화(전 광주지역총친회장)
권태복(전 서울금천총친회장)
권태정(홍성)
권태호(변호사)
권혁기(삼성농장 회장)

권혁원(홍성)
권오형(삼덕회계법인 회장)
권용기(대전지역총친회장)
권용주(매현공중중 고문)
권용준(로타리 3750지구 총재)
권중숙(남양주)
권혁재(권문회)
권혁춘(화봉회 회장)

권혁환(권문회)
권오덕(전 감사, 변호사)
권은진(전 상임위원)
권영현(미국 미주총친회장)
권오덕(중국 청도총친회장)
권영철(일본관서총친회장)

<2면에 계속>

2026년 8월 찬조금 및 임원 회비 납부 내역

<찬조금>

추밀공파 정현공중중 200,000원

<임원 회비>

이사

권순길(경기 양주) 300,000원
권경탁(서울 동대문) 3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합계 : 800,000원

안동권씨대중회

제434주년 충장공 권율 도원수 이치대첩 기념제

임진왜란 최초 육전(陸戰) 승전지

제434주년 충장공 권율 도원수 이치대첩 기념제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안동권씨 대중회와 추밀공파종회에서 대형 버스 1대를 임차하여 단체로 참석할 예정이오니 종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 시 : 2026년 8월 26일 (월) 오전 10시
- ❖ 장 소 : 이치대첩지 충장사
- ❖ 주 소 :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189
- ❖ 문 의 : 대중회 사무처 02-2695-2483~4
- ❖ 집합장소 : 사당역 1번 출구 공영주차장, 버스에 탑승, 죽전간이정류장 경유, 출발시간 8. 26. 07:00(시간엄수)
- ❖ 점심식사 제공
- ❖ 후 원 : 안동권씨 추밀공파종회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혁홍·안동권씨 추밀공파종회 회장 권오돈

